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승계 전략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 차이」 외 8월 동향

2024.08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05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09
IV. 그룹·센터 소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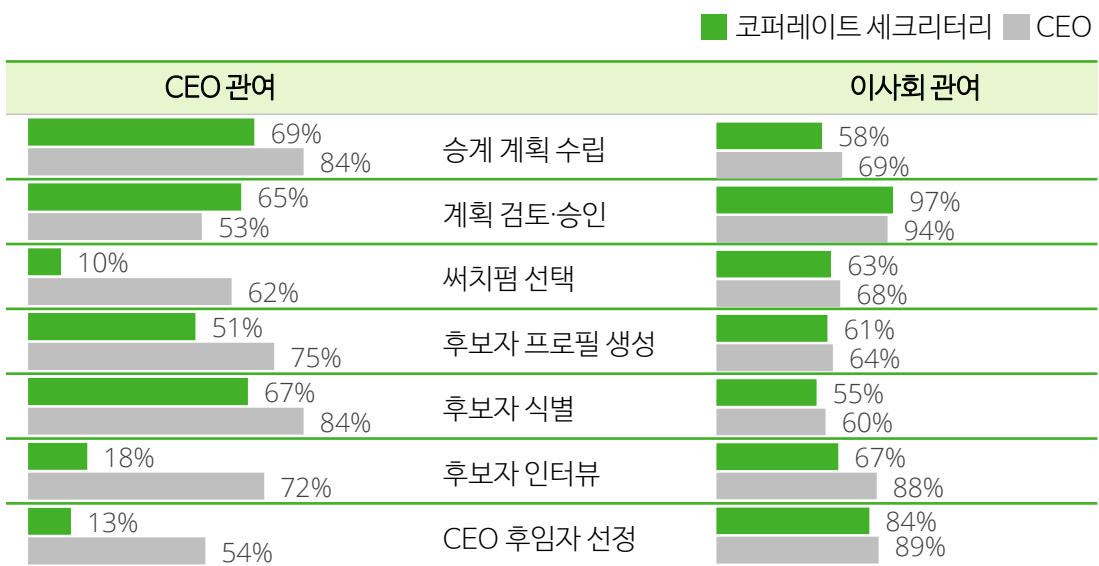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승계 전략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 차이

2024년 7월, On the Audit Board's Agenda, 「Variance in succession strategy and transition processes」

- 승계계획 관한 서베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CEO(91명)와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67명) (Corporate Secretary)*의 응답 차이를 살펴봄
 - *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법무, 이사회 지원, 거버넌스 관리, 주주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관리직
- 승계 전략 및 전환 프로세스의 특정 요소에 대해 경영진-이사회 간 어느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남
 - 최고경영자(94%)와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97%)는 모두 '승계계획의 검토·승인'에 이사회가 중요하게 관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CEO 관여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낮게 나타남(CEO 53%,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65%)
 - 승계 프로세스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CEO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보다 크게 나타남
- 서베이 결과는 승계 전략과 전환의 영역에서 경영진-이사회 간 기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승계계획의 세부사항과 관계없이, 경영진-이사회 간 기대 일치 시 효과적인 승계 가능성 제고 가능
 - 조기퇴임 발생 시 사전에 기대 일치 사항을 공유하고 동일한 인식을 형성하면 추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와 CEO간의 인식 차이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7가지 고려사항

2024년 4월, THE WALL STREET JOURNAL, 「7 Considera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Finance」

- 최근 딜로이트 [웹캐스트](#)에서 재무 데이터 모델(FDM, Financial Data Model)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몇 가지 전환과제에 대해 논의함
 - * 조직의 재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로, 재무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보고를 위한 일관된 틀 제공



원문 다운로드

● 장애요인 식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금융 조직은 데이터 전환 일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 절차가 불충분하면 데이터 무결성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비즈니스의 참여도 부족 역시 데이터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애요인 해결

구분	주요 내용
전문가 조직(CoE)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인력을 갖춘 CoE 구축시 감독을 제공하고 조직의 참여 촉진 가능
조직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을 위해서는 출발선부터 조직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전환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사적 방법론 수립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
데이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은 문서화 및 보고 표준이 포함된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하는 공통정보모델을 통해 재무데이터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됨
통제를 고려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및 자동화 구현을 설계하면 혁신과 조직의 성장을 리스크 및 내부감사 역량과 감사 준비 정도에 맞춰 조정 가능
구조화된 자동화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모델을 명확하게 정의 시 자동화 통제가 가능해지며 재사용 가능 개체와 코드를 여러 부서에서 일관되게 사용하여 일관된 자동화 구현 가능
역할과 책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여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전문지식을 활용한 변화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확립은 전환의 변화관리와 직원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 유용함

*Center of Excellence: 조직 내 새로운 역량을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전문가 집단

**Common Information Model: 비즈니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자원정보 환경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델로, 플랫폼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기술 중립적으로 자원관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2024.08.07.(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 지원 및 '24.3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함
-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24.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공시 내역을 점검함
 - '24.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사(27,813개 안건) 대상

●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

1. 의결권 행사 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

- 점검 대상 274사 중 265사(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 기재

2.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의 형식적 공시

- 121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51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

3.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 미준수

- 의안명(246사, 89.8%)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의안 유형(233사, 85.0%)과 대상 법인과와의 관계(198사, 72.3%) 등 미기재

4. 의결권 불성실 행사

-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 불가능
-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으며,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 행사
-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은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추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자산운용업체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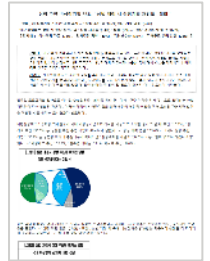


원문 다운로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비상장기업 의견 조사

2024.07.29.(월) 대한상공회의소

-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을 위한 것' 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가 발표됨
-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 대상 조사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함
 -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힘
 - 국내 비상장사 전체에 대한 전망으로는, 국내 비상장기업의 73%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상법 개정시 국내비상장사들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기피할 것으로 내다봄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 기피 사유 (복수응답)
 - 응답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기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첫 손에 꼽았음
 - 이어서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등이 이유로 제시됨



원문 다운로드

구분		응답률
이사 책임 가중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확대	70.8%
경영 비효율 초래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40.4%
	경영 보수화 우려	37.3%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운용상 어려움	지배구조 등 분쟁 발생가능성 확대	28.0%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	16.1%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2024.07.16.(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함께 지난 7월 16일,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함
-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됨
- 주요 논의 내용



원문 다운로드

1.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

-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 강조 및 국내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은행의 법규준수 유도방안

-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언

3. 은행권의 단순·반복 검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하여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
-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 강조

4. 부동산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
-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내규·전산시스템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운영사례 공유

5.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

6.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

- 하나·기업·아이엠뱅크·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 지침(안) 마련

2024.07.12.(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함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내용

1.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
- 시범운영 희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제출일로부터 '25.1.2.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 할 수 있음

2.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실시 예정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
-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예정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1. 위법행위 고려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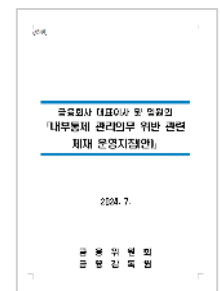
- 발생 경위 및 정도: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하였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
- 위법행위의 결과: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

2. 행위자 책임 고려 요소

- 예측 가능성: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결과 회피: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원문 다운로드



2024. 7.

금융위원회

별첨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배당예측 등 8개 지표 중점 점검 [MSN]
-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지배구조 족쇄법' 나온다 [한국경제]
- '상법 개정' 전에 바꾸자...재계 지배구조 개편 불 지폈다 [이뉴스투데이]
- 쫓개고 합치고...지배구조 개편 불 지피는 유통가 [이코노믹데일리]
- 이복현 원장 "지배주주이익 쫓는 경영 실태 문제...운용사, 지배구조 선진화 위해 역할해야 [뉴스웨이]
- SK그룹 지배구조 개편...계열사 합병 매각 속도낼 듯 [폴리뉴스]

이사회·감사위원회



- 금감원장, 기업 철저한 인식 전환 위해 '이사충실의무' 논의 필요 [KBS]
- '식물이사회' 만드는 상법 개정에 상장추진 기업 36% '재검토' [뉴스1]
- 이준수 부원장 "내부통제 위험관리, 은행 이사회 역할 중요" [딜사이트]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CEO-이사회 역할과 책임 강화" [연합뉴스]
- 황병우 號 DGB금융, 사외이사 평가시스템 도입 [서울경제]
- 한미그룹 3인 연합, 이사회 확대 추진...임시주총 소집 청구 [연합뉴스]
- 정상혁 신한은행장, 해외법인 이사회에 내부통제 강조 [뉴시스]
- 이사회, 주주 이익도 지켜야...정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시동 [한겨레]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사외이사 운영 지원...딜로이트, 헤드헌팅 전문기업과 MOU [NATE]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M&A 분야 ESG 동향 서베이' 리포트 발행 [매일안전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74%, 인수평가 때 ESG 성과 검토" [아시아 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리포트 발행 [이로UNET]
- 딜로이트 안진, '모닝피치 아시아개최...바이오벤처와 국내외 투자자 연결 [약업신문]
- 딜로이트 '아태 기업임원 80%, 18개월 내 최소 2건 매각 될 전망' [서울경제]
- 중진공, EU CBAM 대응 특화 이력서 콘텐츠 공개...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협업 [아주경제]
- 한국 딜로이트, 생성형 AI 관련 보고서 발표 [브릿지 경제]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좀비기업 91개...상폐 절차-심사 단축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 최윤열 신임 한공회장 '기업 밸류업에는 회계투명성이 더 중요' [뉴시스]
- 야당발 금융위법 개정안...회계 투명성 제고에 여야 없다 [뉴스토마토]
- 하나증권, 이사진 '역량진단표' 공개...투명성 강화 집중 [더벨]
- KB국민은행,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 방지 박차 [문화뉴스]

부정행위방지



- 금융당국, 자본시장 부정행위 제재 강화...'불공정거래시 10년간 금융투자임원선임 제한' [뉴스웨이]
- 시세조종등 부정행위 의심되면 계좌 동결...당국, 제재 강화 속도 [서울경제]
- 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연합뉴스]
- 지방공기업 사업범위 지역 확대하고 회계관리 강화 [아시아투데이]
- 전세계 ESG 소송 2.5배 증가...'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뉴시스]

규제동향



- 금감원,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내부통제 역량 강화 주문' [대한경제]
-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제출 시 금융사 제재 한시적 면제' [한겨레]
-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 선출 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 하반기 은행 경영 실태평가..'지배구조 개선 점검' [MBC 뉴스]
-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 [시사위크]

M&A



- 지배주주만 배려한 M&A, 소액주주 보호 대책은? [이코리아]
- 기업 M&A, 정부협조시 결합심사 기간 단축...20일내 의견서 작성 [뉴스1]
- 알짜경영 대명사 메리츠화재의 M&A 시장 참전... '진정성이 성패 가른다' [산업경제]
- 증시 불안에 M&A도 먹구름...변수로 떠오른 '주가' [아시아경제]
- '매각 4수' MG손보, 경쟁입찰 성립...보험사 M&A 물꼬 트이나 [아주경제]
- M&A 시동 거는 제주항공...LCC 지각 변동 예고 [한국경제]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 신청인원이 정원에 도달하여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웨비나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
- 일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0:00 ~ 15:00
- 장소: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아잘레아스 (7F)
- 문의: krccg@deloitte.com

Agenda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

Opening 10:00 ~ 11:00	Opening Remarks	홍중성 총괄대표
	참석자 인사	
	Keynote Speech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Break Time		
Session I 11:00 ~ 15:00	I 내부통제 최신 동향 및 시사점	
	I-1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공시 강화에 따른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정현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I-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이승영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오찬	
	II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장정애 동 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eak Time		
	III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이성호 컨설팅부문 (AI&DATA) 상무
Closing 15:00	Clos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 각 세션에 Q&A 포함

**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프로그램 세부정보



프로그램 소개영상

- 양방향 소통을 위해 소규모 정원으로 진행되며, 참석자 간 교류를 위해 네트워킹 세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신뢰 구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03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얀 바비악(Jan Babiak),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몬트리올 은행 사외이사 • 카린 돔(Karin Dohm), 세코노미 AG 사외이사, 호른바흐 바우마르크트 AG 및 호른바흐 홀딩AG CFO • 카린 스미스 이헤나초(Carine Smith Ihenacho),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최고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 젠 후이 탄(Jenn-Hui Tan),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최고지속가능책임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결정, 신뢰, 보고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서 감사위원회와 거버넌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논의 예정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감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역할과 조직 내 신뢰 구축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이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

 신청하기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CEO와 이사회 의 역동성 강화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10일 (목) 오전 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가 거시적 차원의 문제, 기술 발전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계속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와 CEO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음• 승계계획, 디지털 혁신 리더십, 협동적 의사결정 등 주요 주제를 탐구하며 CEO와 이사회 구성원 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인사이트를 공유 예정• 특히 전환기와 변화의 시기에 두 역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사회 거버넌스의 선도적인 사례 살펴볼 예정

신청하기

[웨비나] 지정학과 미국 선거: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17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히라 나이트(Shahira Knight), Deloitte US 정책 및 대정부 관계 관리 책임자, 전 백악관 입법 업무 담당 국장• 모리스 옵스트펠드(Maurice Obstfel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명예 경제학 교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Admiral James Stavridi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6대 최고사령관, 칼라일 그룹의 글로벌 업무 부사장·전무 이사,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사회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불확실한 선거 결과와 선거 결과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사회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논의 예정• 이사회는 어떻게 지정학적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의사 결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견해를 공유 예정

신청하기

I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I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